

당신의 손에 우리 어머니  
와 사랑하는 처, 4대 독자인  
우리 이들을 죽인 것에 나  
는 용서를 빌고 사회의 잘  
못된 현실이 잘못된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부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으로 살아가시며 절대로 죽  
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만약 사형을 당하면 나도  
그날 사형날(죽는 날)이옵  
니다.

※ 판사님 절대로 죽여서는  
안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용서를 빌  
니다.

- 유영철의 사형에 반대하는  
피해자 고정원의 탄원서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43-1  
Tel. 02-460-7622



“판사님 절대로  
유영철 피해자, 고정원의 탄원서에서  
죽여서는 안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 차례

1. 사형제도 폐지/중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서명 .....	4
2. 인사말/이영우 신부 .....	6
3. 기사 스크랩 .....	8
4. 유영철 피해자, 고정원 선생 인터뷰 .....	10
5. 유영철 피해자, 고정원 선생 탄원서 .....	12
6. 피의자 유영철 편지 .....	14
7. 사형폐지의 근거와 대안 / 김형태 변호사 .....	16
8. 나는 오늘 모든 사형수를 감형한다 / 조지 라이언 .....	24
9. 사형제도와 인권 침해 / 이영우 신부 .....	26

# 사형제도 폐지/종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서명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4일부터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전국교구 본당, 수도회에서 전개하였다. 이미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같이 하였고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현직주교들(2005년 12월 주교단)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전국의 가톨릭 신자 11만5천861명이 동참하였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 서명을 첨부한 사형제도 폐지 청원서를 3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진석 추기경	이문희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최영수 대주교
강우일 주교	정명조 주교	이병호 주교	김지석 주교
장익주교	최덕기주교	장봉훈 주교	이기현 주교
최기산 주교	안명옥 주교	권혁주 주교	이한택 주교
유홍식 주교	염수정 주교	김윤희 주교	이용훈 주교
김희중 주교	이동호 아사스		
김희광			

# 사형제도 폐지/종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7대 종단 원로 서명

사형제도 폐지를 의제로 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등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7대 종단 원로들을 비롯한 종교계가 다시 한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박사, 지관 스님 등 종단 원로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4월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의 미명하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의 입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사형제가 국제법상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든 국가가 선언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제폐지조약'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2.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과 관련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고집하는 것은 교정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살인을 통해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아가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국회에 권유한다. 지난 15대, 16대에 이어 이번 제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 법안은 발의된 한 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번 4월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4. 4.

기독교, 강원룡 (서명)	불교, 지관 스님	원주교, 김수환 (서명)
李智冠		金수환

김수환 추기경과 지관 스님이 서명한 성명서. 다른 종단 원로는 다른 서명 용지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인사말]

##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영우 신부(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며칠 전 교도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교도관은 전에는 사형제도에 대해 별관심이 없었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와 만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학교 숙제라며 사형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더라. 예전 같으면 사형제도는 당연히 있어야지 하고 대답했었을 텐데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사형제도는 없어야 돼.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안 되는 거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이 바로 생명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라기를 바라는가.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들을 종종 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부모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란다.’ 또 한 부모는 ‘그래,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더 나쁜 것이란다. 비록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될까.

전자의 경우 어린이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주관에 의해 판단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

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개인이 판단하고 생명을 상대화시켜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비록 범 죄는 나쁜 것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내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내 가치 기준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죽여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 것이 연쇄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법의 이름으로 죽여도 괜찮다고 결정을 내린 사형수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가르친다면, 모든 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를 벗어나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땅에 생명의 문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생명의 문화에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먼저 참여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기사 스크랩]

## “유영철 용서…양자 삼고 싶다” 가족 셋 잃은 고정원씨, “두 자녀도 돌볼 것”



사형수 유영철씨의 연쇄 살인 행각에 가족 셋을 한꺼번에 잃고도 유씨를 용서한 고정원 (64)씨. 그의 용서의 끝은 어디인가. 유씨의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편지를 내기도 했던 고씨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유씨를 양자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가 자신을 교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조성에 수녀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니 나름대로 인간성이나 문학적 소질, 재능도 있더라”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내 아들을 죽였어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고씨는 또 “사형제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유영철은 그 제한된 장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텐데, 동정이 가는 것은 그가 남겼다는 자녀 둘”이라며 “유영철이 허락하고 상황이 된다면 내 친손자, 손녀처럼 돌봐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애들이 평생 아빠를 그리워할 테니 내가 사는 동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아들과 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런 뜻을 조 수녀한테 전했고, 조 수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씨에게 이런 사실을 곧 전달할 계획이다. 조 수녀는 “외국은 피해자 가족을 정서적으로 돕는 기반이 잘 돼 있지만 우리는 피해자 가족과 접촉하기도 어렵다”며 “고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10월 노모와 부인, 아들을 유씨의 손에 잃은 고씨는 사건을 당한 뒤 괴로워하다 유씨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유씨의 재판 과정에 탄원 편지를 낸 바 있다. 고씨는 지난 설날 유씨에게 영치금을 넣어달라며 조 수녀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씨의 마음을 전해들은 유씨는 2월 조 수녀에게 보낸 참회 편지에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정원님처럼 사랑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기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분과 인연을 맺고 계시다니 나중이라도 이 못난 사람의 글 좀 전해 주십시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놀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감동이 앞섭니다.”

박용현 이순혁 기자 piao@hani.co.kr

[피해자 인터뷰]

## 고정원 선생 인터뷰

유영철 살인 피해자 가족  
어머니, 아내, 4대 독자 아들 희생됨

2005년 10월 3일



악몽 같은 순간이 늘 머릿속에 잠재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아내한테 뽀뽀를 해주고 난 버스타고 아내는 아침에 운동을 갔지요. 제가 저녁 6시 40분에 와보니 집안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 유영철이가 우리 가족을 죽였는가? 왜 잔인하게, 전부 둔기로 머리를 쳐서. 어머니는 눈이 빠져나올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고, 아내는 아침에 해장국 먹었던 것이 전부 다 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범인을 정말 잡아서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도 있었는데, 막상 범인이 잡히고 나니까 '어머니 곁, 아내 곁, 아들 곁으로 가야 되겠구나',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가신 분이 너는 딸들(서른이 넘었지만), 아직도 철없는 아이들을 네가 끝까지 보살펴 주라고 하는 거 같아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사실 유영철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유영철을 내가 만나서 정말 죽었느냐? 죽었다면 왜 죽었느냐? 라고 묻고 싶지만, 이미 우리 가족은 다 죽었어요. 한 줌의 흙으로 용미리 꽃동산에 다 묻어놨어요. 범인 유영철에게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고 한다고 해서, 개가 피눈물 나는 어떤 사죄를 한다고 해서 죽은 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분들, 그 유영철로부터 피해를 보신 가족들이나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보면 저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짓을 한다고 하고, 왜 자기 부모, 처자를 죽인 자를 용서하느냐고 나를 책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유영

철도 한 인간이고, 그 밑에서 난 2세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죽는 건 자기 스스로 죽더라도 법으로(집행을)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쥐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게끔…….

신앙인으로서 저는 인간이 인간을 재판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운명이 있어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친구를 잘 활용해서 나는 이런 살인자였지만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고, 그런 사회운동가로 만들면 얼마든지 범죄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유영철을 죽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유명철의 랭키에 대해서 많은 생각  
을 했지만 저는 2004년 7월 10일 이전  
성당에서 영세례 받고 죽은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자감을 청장님  
이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두서 많은 글을  
들었습니다. 부디 유명철을 선처와 사랑으로  
유명한 유명철의 관여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 7월 19일

고정원 (루치아노)

나도 저게 2005년 주인 고정원입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 4대째자인 우리아들을 죽인것이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잘못된 현실이  
잘못된 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며 절대적  
죽여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만약 사형을  
당하면 나도 그날 사형 날 (죽는 날)이옵니다.  
※판사님 절대적 죽여서는 안됩니다.  
가장 잘 대해서 응시를 바랍니다.

2004년 7월 19일

고정원 (루치아노)

### 유영철이 피해자 고정원 선생에게 보낸 편지

어르신, 못한 인간 인사 드립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상스레 사회의 말씀을  
 드린다. 그것조차 영지가 없지만 어르신의 놀라우신  
 마음에 지은한 이렇게 슬프지만 가슴 아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영절 때나 무슨 때가 되면 어르신의 가슴시림이  
 저에게도 느껴질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텐데  
 그럼에도 저의 외로움을 멀리해주시고 영치금 까지  
 내려 해주신 어르신의 그 기록함에 이 못한 인간  
 그저 명목없이 고개만 숙여지고 눈물만 흘립니다.

어르신께서 그토록 따뜻한 분이셨기에 사민님은  
 마지막 순간 까지 어르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그 심정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양갈음이 옥적이었던 저의 바보같은  
 분노에 희생양이 되셨던 할머니와 사민님 그리고 저와  
 동갑내기였던 아드님의 믿음까지 요즘들어 부쩍 꿈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강히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는 없지만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숨쉬고 있는 시간 시간  
 뉘우쳐겠습니다.

괜한 인사가 어르신께 상처를  
 끼치지 않으나 걱정이요 구차한  
 변명 같아 긴 말씀 올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진정 글썽같은 심정으로 사회의 마음  
 가슴속 깊이 전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유영철 올림.

'06. 2. 2



### 유영철이 조성애 수녀에게 보낸 편지

조성애 수녀님.

상처를 입고 저같은 증인의 씨앗을 키우게 되는데 아이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족함이 크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구를보다 아이들은 상처 받으면 안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비틀리게 자란 마음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정원님처럼 사랑의 꽃이 어디까지 인가를  
 보여 주시는 분도 계시기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 분과 인연을 맺고 계시다니 나중에라도  
 기쁨이 되시면 이 못한 사랑의 꽃을 전해 주십시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놀랄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동이 앞섭니다.

그분이나 수녀님이나 저나 이 세상과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그 믿음에 전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녀님처럼 천사의 마음이 악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따뜻함이 누구들에게 제때 전해진다면  
 악마를 변해 가는 믿음은 미리 악을 수 없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랑 많이 들 나뉘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양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저의 죄값은 전히 지르고 이 복잡한 마음도 배우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씨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06. 2. 2  
 유영철



## 사형폐지의 근거와 대안

김형태 변호사(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장)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1981년 프랑스의회 선언>

### 1. 이론적 측면

국가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박탈권을 가지지 못한다.

####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 1. 요지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 반대의견

생명권의 제한은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며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므로 이의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냐는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헌법 제12조가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신체는 본래 생명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므로 생명의 박탈은 곧 신체의 박탈이며 신체가 없는 신체의 자유권은 그 본래의 의미까지 상실하게 되고 결국 신체자유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수단의 필요성(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세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제1차적이고 원칙적이며 상대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을 정한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은 상대적인 한계규정을 준수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최종적이고 예외적이며 절대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을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이 생명의 유지이므로 생명의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위의 절대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므로 생명권이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는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과 단서 규정을 오해하였거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오해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2. 범죄 억제 효과 여부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도 조사이다. 이 두 차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중신형과 같이 그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참조: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230)

또한 위 보고서는 214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사형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도,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지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대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도에는 1.73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하였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The Death Penalty: Facts and Figures on the Death Penalty*,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statistics-eng>. Last updated: 4 October 2005)

## 3. 오판 가능성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위험성은 절대 없앨 수 없다.

## ● 국내

- 인혁당
- 김기웅 순경
-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 ● 미국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 선고 후 수년이 지나 처형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하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 신빙성 없는 증인의 진술이나 물리적 증거 혹은 자백의 채택, 부적절한 변호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유죄사실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사형집행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당시 주지사는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하였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1977년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래 오판에 의해 사형 집행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었다. 1977년 이후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25명이 사형집행되었다.

## ● 오판 가능성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2003)

대 상	비 율(%)
일반국민(1064명)	93%
시민단체 상근자(260명)	99.2%
언론인(280명)	94%
국회의원(100명)	95.7%
법관(113명)	69.9%
검사(138명)	41.3%
변호사(105명)	85.7%
교도관(106명)	57.5%
교정위원(96명)	93.2%
교도소 의무관(55명)	83.6%

#### 4. 폐지의 세계적 추세

##### ● 문명국은 모두 폐지

##### 세계의 사형제 폐지 역사

연도	국 가	연도	국 가
1848	산마리노	1982	네덜란드
1863	베네수엘라	1983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1865	산마리노	1984	아르헨티나
1867	포르투갈	1985	오스트레일리아
1870	네덜란드	1987	아이티, 동독, 리히텐슈타인
1877	코스타리카	1989	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1905	노르웨이	1990	만도라,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이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1906	에콰도르		
1907	우루과이		
1910	콜롬비아		
1921	스웨덴		
1928	아이슬란드	1992	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
1933	덴마크	1993	기니비사우, 홍콩, 세이셸, 그리스
1942	스위스		
1947	이탈리아	1994	이탈리아
1949	서독, 핀란드	1995	지부티, 모리타니, 스페인, 몰도바
1950	오스트리아		
1956	온두라스	1996	벨기에
1961	뉴질랜드	1997	그루지아, 네팔, 폴란드,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62	모나코		
1966	도미니카 공화국, 솔로몬 군도	199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1968	오스트리아		
1969	바티칸 시국		
1971	몰타	1999	동티모르, 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1972	핀란드, 스웨덴		
1973	영국	2000	코트디부아르, 알바니아, 볼타
1976	포르투갈, 캐나다	2001	칠레

1978	덴마크	2002	키프로스, 유고슬라비아, 터키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브라질, 피지, 페루	2003	아르메니아
		2004	부탄, 사모아, 세네갈, 터키
		2005	라이베리아, 멕시코
1981	프랑스, 카보베르데		

\* 이름이 중복되는 나라는 1차로 전시 등의 예외를 두고 사형제를 폐지한 뒤 2차로 완전 폐지한 나라들임. <자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 ● 폐지현황 (2004. 6. 9. 현재)

- ①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폐지 : 유럽연합(EC) 등 80개국.
- ②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폐지 :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들을 포함한 15개국.
- ③ 사실상 사형제폐지국 : 알제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 23개국.
- ④ 사형 존치국 : 미국, 중국, 일본 등 78개국.

##### ● 사형집행현황

###### ① 국내

연도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유괴살해	간첩 등	계	일본
1970	1	11			2	14	26
1971	2	3	1		5	11	17
1972	6	8			20	34	7
1973	1	2			4	7	3
1974	17	20	2		19	58	4
1975							17
1976	8	16	1	1	1	27	12
1977	5	15	1	2	5	28	4
1978							3
1979	3	5		2		10	1
1980	5	4				9	1
1981							1
1982	8	10	2	1	2	23	1

1983	6			1	2	9	1
1984							1
1985	1	3		3	4	11	3
1986	4	5	1		3	13	2
1987	1	2	1	1		5	2
1988							2
1989	3	3		1		7	1
1990	6	7	1			14	
1991	5	1	1	2		9	
1992						9	
1993							7
1994						15	2
1995						19	6
1996							6
1997						23	6
1998							4
1999							5
계	82	115	11	14	67	355	145

자료 : 헌법재판소 9헌바13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 장관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서 원용함. 1992년 이후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중에서 원용.

## ② 국외

1999년	중국	최소 1077
	이란	165
	몽고	100
	사우디	103
	미국	98

\* 미성년자 사형 집행 국가 : 1990년대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미국, 예멘

## 5. 사형폐지와 여론.

### ● 국내(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2003)

대 상	비 율(%)	대 상	비 율(%)
일반국민(1064명)	34.1%	검 사(138명)	16.7%
시민단체 상근자(260명)	85.8%	변호사(105명)	60%
언론인(280명)	54.3%	교도관(106명)	11.3%
국회의원(100명)	60%	교정위원(96명)	80.6%
법관(113명)	53.1%	교도소 의무관(55명)	11%

### ● 프랑스

1981년 폐지법안에 대해 66%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회는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사형제폐지 입법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18년 지내면 가석방도 허용하고 있다.

### ● 국제적 폐지 노력

- ①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
- ②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유고연방 및 르완다 전범처벌을 위한 유엔안보회의 결의안; 전쟁,학살범죄 등 반 인류적 범죄라도 사형부과 금지.
- ③ 1989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제1조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 관할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 54개국 서명 비준, 8개국 서명
- ④ 유엔 인권위원회 : 1997년 이후 매년 사형폐지 집행유예 권고결의(2004년 76개국)

## 6. 종신형 대체입법을 통한 범죄 재발 방지 및 범죄자의 처벌 및 교화

## 7.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부조 체계 확립

## 나는 오늘 모든 사형수를 감형한다

조지 라이언(일리노이 주지사 역임)



미국 일리노이주의 지사를 역임한 조지 라이언(George Ryan)씨는 지사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집행을 정지하고 있던 모든 사형수의 감형을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2003년 1월 11일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행한 감형 연설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 어디에 정의와 공평이 있다는 말인가?

일전에 벨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미국이 전 세계에 정의와 공평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유럽, 캐나다, 멕시코와 그밖에 중남미 국가 등, 사형을 폐지한 대부분의 동맹국들과는 달리 제3세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까지도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개 주가 사형을 폐지했지만, 그 어떤 주에서도 살인사건의 증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작년에 약 1,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2%에게만 사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대체 그 어디에 공정과 평등이 있습니까? 일리노이주의 사형제도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할까 말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102명의 일리노이주 검사가 준수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요인이 사형판결을 좌우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어떤 지방에서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확률은 쿡 카운티의 5배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정의와 공평이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형의 문제점을 역설하는 조지 라이언 주지사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번 주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생명이 박탈된 때에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은 복수이지 정의는 아닙니다. 신은, 정의란 자비와 관용과 불쌍히 여김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미덕이지 결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나쁜 결점은, 이론상 사형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집행에서는 약하고 가난하며 지식이 없는 소수인종에게 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것은 팻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전 지사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50년 전에 그가 <공적 정의, 사적 자비>(Public Justice, Private Mercy)를 집필한 후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신부(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형수들을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사형수들이 갯방에서 사형장까지 오는 길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길이다. 이 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갯방 안에 앉았다가 '00번 나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발버둥을 친다. 쇠창살을 붙들고는 '나는 안 가! 못 가! 살고 싶어. 죽기 싫어!' 하며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딸을 비틀어서라도 수갑을 채워서 들고서라도 목을 매달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찾는 데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 울며, 부르며 그 길을 본다. 창틀 사이에 조그만 들풀이 피어 있어도 그곳에 코를 대고 떼부가 찢어지도록 풀냄새를 맡는 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쪽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고 땅 한 번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수갑을 차고 끌려오면서도 생의 마지막 발걸음들이 두렵고 아쉬워 그냥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보폭이 5cm도 될까 말까 하게 발걸음을 떼다. 그렇게 오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당당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라며 다시 신발을 좇으러 또 돌아온다. 그만큼 더 살겠다고, 또 다시 신발 있는 데로 돌아와서 신발을 신고 돌아서고 한 발자국이라도 벌며 1분, 1초라도 좀 더 살아보고 싶었던 생명에 대한 처절한 애착이다. 죽음의 길에서 보여주는 사형수들의 모습이다.

사형수들은 자신이 지내던 갯방에서 불러 나와 긴 지하복도를 걸어서 자신이 목매달려 죽을 지하실 밀을 통과한다. 사형장 밀을 통과하면 바로 문이 있다. 사형수들은 계단을 올라 문을 밀고 집행하는 곳에 앉게 된다. 그게 사형장이다. 나도 그때 사형장은 처음 봐 본 것이다. 처음 들어오니 얼마나 삭막하던지... 밧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묶어 죽였는지 기름이 묻은 듯 반질반질했다. 그것을 보니 비위가 핵 뒤틀렸다. 매스꺼움을 느꼈다. 오늘 이곳에서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 밀음의 형제들, 불쌍한 사형수들이라는 인간적인 애처로움과 서러움이 계속 배어 나왔다.

< 사형장이 하늘가는 밝은 길로 > 중에서

사형집행 형장에 함께 했던 교도관의 증언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곳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고 직접 살인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살인인 것이다. 비참하고 충격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의 심성이 황폐화되기 쉽다. 바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형 집행장이다.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집행 형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 검사와 교도관, 성직자들은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게 된다. 곧 그들의 인격이 법 앞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주장한다.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인의 현장에 대한 끔찍함은 기억하지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씩 죽이는 형장의 끔찍함은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형집행 형장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의 피해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 사형수의 인권

### ● 사형수에게도 인권은 있다

사형집행 현장에서 가장 크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은 바로 사형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인권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권은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천부적인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권이 가장 크게 훼손당하는 것은 생명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생명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 공평하지 못한 법에 의해 사형수가 양산 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사형수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형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더라면, 좋은 집안의 자녀였다더라면,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시기였다면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사형수는 범행 당시 어떤 사람이었고, 왜 잔혹한 범행을 하게 됐을까'를 심층 취재한 적이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사형수 63명을 취재한 결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돈 부족에 허덕였고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범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7%였고 복수심 때문이 30%였다. (국민일보 2006.2.19)

사형수들 대부분은 범행 전에 사회의 약자들이었다. 또한 재판 중에도 법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형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법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 두 번 죽는 사형수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교수형 집행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형수를 두 번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회고록에도 나오듯이 사형집행 때 교수기가 고장이나 다시 집행 한 경우도 있었다.

"그는 천주교 묘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쿵"하는 소리가 컷전을 때렸다. 그 소리는 심장에 꽂히는 비수(匕首)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가 목에 밧줄을 걸고 정말 편안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무로 된 낡은 교수기(絞首機)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이었다. 소장은 즉시 '사형집행 계속!' 명령을 내렸다. 젊은 사람을 두 번 죽여야 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낯 애처로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간수들이 사형대를 고치는 것을 태연스레 보고 있던 월간지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반시간쯤 후면 천당에 가 있겠네요.' 라며 날 위로하는 듯 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두 번째 죽음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사형수 최월갑과 희망원' 중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사형수라 하더라도 두 번 집행을 통해 두 번 죽이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교수형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수형은 신체에 손상이 없고 피도 그다지 나오지 않으니까 잔학하지 않고 교도관의 저항감도 그다지 없다는 것이 집행하는 측의 입장이다. 외국에서는 사형수의 고통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집행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형을 피하고 있다. 외견상의 손상 유무나 잔학성보다도 본인의 고통을 가급적 없앤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교수형이 사망하기까지 가장 긴 시간을 요한다면 교수형이야말로 가장 잔학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사형집행이든 사형집행은 가장 잔인한 형벌인 것이다.

## 교도관의 인권

사형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심정이나 정신적 고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앞의 글에서도 나왔듯이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통보해야 하는 교도관의 심적 고통. 그리고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 사형수를 방에서 끌어내 사형장까지 함께 동행해야 한다. 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저항하는 사형수를 억지로 끌고 형장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교도관의 역할은 바로 저승사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형장에서 사형수의 몸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밧줄을 목에 걸고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고 죽음을 확인해야 하는 교도관의 업무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 흉악한 범죄자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형집행에 가담해야 했던 교도관을 오히려 손가락질한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사형을 주장하고, 법관은 흉악범에게 국민감정 혹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교도관에게 명령하여 집행한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무서운 업무만 교도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앨런은 '사형은 지지하고 있으면서 왜 집행인은 미워하는가?' '사형이 있으면 집행인이 필요하며, 누군가 이 업무를 '의무'로 행해야 하는데, 왜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만 미워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인이 임신 중의 집행, 저항하는 수형자의 목에 로프를 감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여야 하는 모순, 교도관과 사형수가 인간적으로 교류한 이후의 처형,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인간을 냉혹하게 죽여야 하는 현실. 이 모두가 교도관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사형집행이 끝났을 때, 참여한 교도관들은 눈에 핏발이 서는 등 제 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서둘러 구치소 근처의 술집으로 몰려가 짱소주를 밤새도록 퍼마신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또 사회정의의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죽어간 사형수들은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정이 들었던 얼굴들이다. 집행 후 어느 교도관은 집행 뒤의 소감을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거죠'라고 했다.

교도관은 죄를 저지른 자를 바로잡아(矯) 올바르게(正) 인도하는 직원이며, 교도소는 바로잡아(矯) 인도하는(導)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소(교도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직원(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끔(사형) 강요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교정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악마의 길에 빠진 자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같은 손으로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 종교인들의 인권

사형수들은 형이 확정되면서 거의 종교에 귀의한다. 그리고 성직자들과 종교 위원들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된다.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조성에 수녀는, 형이 확정되고 집행될 때까지 5, 6년간 사형수들의 수행생활과 집행 순간을 지켜보면 누구라도 사형제도의 비정함에 진저리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초기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처음 1년간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 잠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깨운다. 시간이 좀 흐르면 구치소를 드나드는 종교인들을 통해 종교에 귀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여전히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 때때로 자살충동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범적인 수행생활을 하며 수용자들을 전도하기도 한다.

이렇듯 변화되어가는 사형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안겨준다. 종교적 신념과 사형수들과 관계에서 사형 제도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사형수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기 위해, 또 사형수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형집행 현장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제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지만 갈등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모순에 심각한 고통이 큰 것이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죽어가는 사형수를 볼 때는 자신의 무력감과 더불어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안성농협 카빈총 강도 살인 사건 범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어느 사형수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 청구를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 서울법원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이던 중 집행되자 '오만한 판, 검사와 위증을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 처형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사형수들을 대할 때만 해도 사형이 필요악이거니 막연히 생각했던 문장식 목사는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진정한 교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 목사님은 특히 1987

년 4대독자 사형수(강도살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치며 처형되자 노모가 이듬해 구치소 뒷산에서 음독자살하는 등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형수가 보낸 편지 중에도 서로가 사형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

"신부님!

마지막 코스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지요?

솔직히 저도 스산한 형장에서 신부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음산한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한 달 뒤 미사를 약속하고 헤어지는 발걸음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러니요!"

온갖 정성과 사랑을 통해 변화된 형제들을 형장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형수나 성직자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교정교화를 담당하고 신앙으로 인도했던 종교인이지만 마지막 코스인 현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면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 여러 죽음을 목격하고 체험하지만 며칠 전까지 밝게 웃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했던 형제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것도 인위적으로 죽이는 현장을 보고 초연해 할 수 있는 성직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명이 집행되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신부님들 중에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심신이 황폐해지고 급기야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신부님은 보름정도 제대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형장에서 죽어간 형제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집행 현장에서 사형수들을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없다. 집행의 끔찍함과 허탈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심신의 피곤을 넘어서 인격의 파괴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종교인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세상은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현장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세상을 기도하면서...